

2019년 6월 26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나스닥, 대형 기술주 하락 여파로 부진 파월 연준의장 “정책금리 조정할 정도의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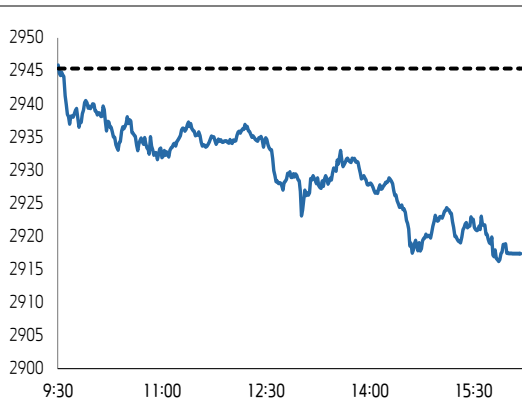
미 증시 하락 요인: ①대형 기술주 하락 ②파월 의장의 발언

미 증시는 부진한 경제지표 여파로 하락 출발한 가운데 대형 기술주에 대한 규제 강화 우려 등 일부 악재성 재료로 관련 종목이 하락 주도. 장중 파월 연준의장과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시장의 예상보다 덜 비둘기적인 발언도 하락 요인(다우 -0.56%, 나스닥 -1.51%, S&P500 -0.95%, 러셀 2000 -0.59%)

미 증시는 ①대형 기술주 하락 ②파월 의장의 발언 등으로 변화. 먼저 대형 기술주는 규제 강화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 민주당 상원의원인 브라이언 샤츠가 “알파벳(-2.61%)과 페이스북(-1.95%) 등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점점 더 극단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라며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여기에 또 다른 민주당 상원의원인 에드 메케이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발표. 이렇듯 대형 기술주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하락. 더불어 제프리스가 MS(-3.16%)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zure 가 아마존의 AWS 와 같은 마진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MS 의 낙폭이 확대. 특히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12 개월 Fwd PER 이 17.8 배로 5 년평균(13.4 배), 10 년평균(14.4 배)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악재성 재료에 민감한 반응

한편, 파월 연준의장은 경제전망 및 통화정책 검토를 주제로 연설이 있었음. 파월의장은 여기에서 “올해 경제는 합리적으로 잘 수행되고 있으며, 견고한 펀더멘털은 유지되고 있다” 라고 주장. 그러면서 “5 월 초 이후 무역분쟁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책금리 조정에 대한 강력한 사례는 발견되지 못했다” 라고 언급. 결국 파월 의장은 “낮은 인플레이 압력은 이전 생각 보다 더 지속될 것 같다” 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금리인하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당장 금리인하를 단행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 한편, 가장 확실히 금리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연준위원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보험성 금리 인하가 적절하지만 7 월 50bp 금리인하는 과도하다” 라고 주장하는 등 의견권 있는 연준위원들은 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고 있음.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121.64	-0.22	홍콩恒生		28,185.98	-1.15
KOSDAQ		710.02	-1.07	영국		7,422.43	+0.08
DOW		26,548.22	-0.67	독일		12,228.44	-0.38
NASDAQ		7,884.72	-1.51	프랑스		5,514.57	-0.13
S&P 500		2,917.38	-0.95	스페인		9,159.80	-0.36
상하이종합		2,982.07	-0.87	그리스		846.66	-0.32
일본		21,193.81	-0.43	이탈리아		21,128.41	-0.7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대형 기술주 하락

알파벳(-2.61%), 페이스북(-1.95%) 등 기술주는 규제강화 우려가 높아지자 하락 했다. 더불어 MS(-3.16%)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우려로 하락 했다. 한편, 기술주들이 대 중국 관세 부과로 기업이익이 감소할 수 밖에 없으며, 2019년 전망을 조정중에 있다는 보도도 투자심리를 위축 시켰다. 애플(-1.52%)과 브로드컴(-0.96%), 스카이웍(-2.09%), 쿠팡(-1.69%) 등은 물론 화웨이 문제로 자일링스(-2.43%), 퀄컴(-0.83%) 등도 하락했다. 결국 실적시즌을 앞두고 기술주 실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이 관련 종목 하락 요인 이었다.

에브비(-16.25%)는 엘러간(+25.36%)을 인수한다고 발표한 이후 급락 했다. 엘러간은 반대로 급등했다. 레나르(-6.17%)는 가이드스 하향 조정 여파로 급락 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페덱스(-3.01%)는 2% 내외 상승중이고, 마이크론(-1.54%)은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 후 시간외로 8% 내외 상승 중이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33%	대형 가치주 ETF(IVE)	-0.60%
에너지섹터 ETF(OIH)	+0.07%	중형 가치주 ETF(IWS)	-0.66%
소매업체 ETF(XRT)	-0.62%	소형 가치주 ETF(IWN)	-0.26%
금융섹터 ETF(XLF)	-0.30%	대형 성장주 ETF(VUG)	-1.49%
기술섹터 ETF(XLK)	-1.84%	중형 성장주 ETF(IWP)	-1.06%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2.12%	소형 성장주 ETF(IWO)	-0.75%
인터넷업체 ETF(FDN)	-1.84%	배당주 ETF(DVY)	-0.41%
리츠업체 ETF(XLRE)	-1.33%	신흥국 고배당 ETF(DEM)	-0.94%
주택건설업체 ETF(XHB)	-1.17%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71%
바이오섹터 ETF(IBB)	-0.21%	미국 국채 ETF(IEF)	+0.15%
헬스케어 ETF(XLV)	-0.41%	하이일드 ETF(JNK)	-0.37%
곡물 ETF(DBA)	+0.48%	물가연동채 ETF(TIP)	-0.17%
반도체 ETF(SMH)	-1.73%	Long/short ETF(BTAL)	+0.3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62.36	-0.83%	+1.02%	+3.38%
소재	363.43	0.00%	+0.86%	+9.06%
산업재	643.50	-0.73%	+0.11%	+4.77%
경기소비재	933.85	-1.07%	-1.06%	+4.37%
필수소비재	604.77	-0.05%	+1.11%	+4.22%
헬스케어	1,075.31	-0.41%	+0.88%	+5.49%
금융	449.17	-0.35%	-0.67%	+2.19%
IT	1,352.02	-1.84%	-0.31%	+5.70%
커뮤니케이션	163.10	-1.60%	-0.29%	+0.28%
유틸리티	307.71	-0.62%	+1.21%	+3.60%
부동산	230.09	-1.35%	-1.70%	+2.4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제한적인 조정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45% MSCI 신흥 지수 ETF 는 1.03%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66 계약) 불구하고 0.70pt 하락한 274.3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54.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덜 비둘기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영향을 줬지만, 대형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한 점이 특징이다. 대형 기술주 하락 요인을 살펴보면 규제 강화, MS 의 개별 악재, 무역분쟁에 따른 실적 부진 등 미국내 기업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 주목할 부분은 관련 이슈는 미국 개별 기업들만의 이슈일 뿐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의 하락이 한국 증시에 꼭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와 함께 미 증시 마감 후 마이크로이 시간외로 8% 내외 상승 중인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한편, 즉각적인 금리인하를 주장해온 블라드 총재가 50bp 인하는 과하다며 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 점, 파월 연준의장도 즉각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할 정도의 흐름은 아니라고 언급하는 등 시장 예상과 달리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연준위원들의 덜 비둘기적인 발언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금리인하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상승 할 수 있다는 평가를 약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조정 가능성이 높지만 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부진

6 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131.3)이나 예상치(132.0) 보다 둔화된 121.5 로 발표되었다. 최근 비농업고용자수 감소가 이어져 왔던 점을 감안 고용시장 부진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여건지수(170.7→162.6), 기대지수(105.0→94.1) 모두 하향 조정 되었다.

5 월 미국 신규주택매매는 전월(67 만 9 천건) 보다 감소한 62 만 6 천건에 그쳤다. 주택재고는 전월(5.6 개월) 보다 증가한 6.4 개월을 기록했다. 판매가격 중간가격도 전년 동월(31 만 6 천달러) 보다 낮은 30 만 8 천달러를 기록했다.

4 월 FHFA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해 예상치(mom +0.2%)를 상회 했다.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2.5% 상승 했다.

6 월 리치몬드 연은 지수는 전월(5)는 물론 예상치(4) 보다 부진한 3 을 기록했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수주(0→1), 출하지수(2→7) 등은 개선되었으나 고용지수(17→2)가 크게 둔화되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미 10년물 국채금리 2% 하회

국제유가 달러 강세 및 부진한 경제지표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란 이슈가 부각되며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이란 이슈 및 미-중 무역협상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 오늘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로 인해 상승했으나, 상승은 제한된 모습이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을 기다리며 관망세가 짙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달러화 즉각적인 금리인하를 이야기 하던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50bp 인하는 과하다고 주장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파월 연준의장 또한 '통화정책과 경제전망'을 주제로 연설이 있었다. 파월 연준의장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늘어나 금리인하를 촉진시키고 있으나, 즉각적인 금리인하 요인은 없다고 주장해 덜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다. 이 또한 달러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국채금리는 이란에 대한 제재 및 주요 경제지표 부진으로 하락 했다. 특히 10년물이 장중 2.0%를 하회하는 등 낙폭이 컸다. 그러나 블라드 총재가 50bp 인하는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인하 요인은 증가했으나 즉각적인 인하는 검토중 이라고 주장하자 단기물의 경우는 상승하는 등 변동성을 키웠다. 한편, 2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평균(2.63 배)을 하회한 2.58 배를 기록했으나 영향은 제한 되었다.

금은 달러 강세 불구하고 소폭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속에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74% 하락했으나, 철근은 0.35%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7.83	-0.12	+6.87	Dollar Index	96.141	+0.17	-1.54
브렌트유	65.05	+0.29	+4.68	EUR/USD	1.1371	-0.25	+1.58
금	1,418.70	+0.04	+5.03	USD/JPY	107.18	-0.11	-1.17
은	15.383	-0.50	+2.10	GBP/USD	1.2693	-0.39	+1.08
알루미늄	1,814.00	+1.17	+1.85	USD/CHF	0.9758	+0.39	-2.47
전기동	6,042.00	+1.38	+1.56	AUD/USD	0.6965	+0.03	+1.28
아연	2,543.00	+2.09	+1.23	USD/CAD	1.3164	-0.12	-1.59
옥수수	457.50	+0.05	-1.19	USD/BRL	3.8506	+0.67	-0.98
밀	540.00	-0.46	+0.84	USD/CNH	6.8854	+0.13	-0.25
대두	926.50	-0.67	-1.46	USD/KRW	1156.20	-0.03	-2.50
커피	107.45	+4.32	+11.23	USD/KRW NDF1M	1154.75	+0.04	-1.64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990	-2.42	-6.94	스페인	0.376	-2.90	-1.40
한국	1.597	+3.20	-2.00	포르투갈	0.477	-4.50	-5.00
일본	-0.155	-0.10	-3.10	그리스	2.459	+5.10	-3.30
독일	-0.331	-2.40	-1.10	이탈리아	2.158	+0.70	+4.60